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09

# 맏아들의 권리

(창세기 25:19~34, 27:1~35)



**“응애 응애!”  
“응애 응애!”**

**몇 년 뒤, 리브가와 이삭에게  
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어요!  
그런데 두 아기는 쌍둥이였지만 겉모습과  
성격이 너무나도 달랐어요.  
형인 에서는 머리카락이 불그스름하고  
몸에 털이 많았어요.**

**몸에 털이 어찌나 많았던지 마치 털옷을 입고 있는  
사람처럼 보였죠.  
반면, 동생인 야곱은 머리카락이 붉지도 않았고  
매끈매끈 몸에 털도 없었어요.**



에서는 타고난 사냥꾼이었어요!

**“아버지! 제가 오늘은 산양을 한 마리 잡아왔어요!  
시장하시죠? 제가 이 녀석을 금방 손질해서  
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! 헤헤.”**

이삭은 에서가 해주는 요리를 좋아했고 야곱보다  
에서를 더 사랑해주었어요.

**반대로 야곱은 가축을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  
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.**

**“어머니, 오늘은 일을 금방 마쳤어요.  
지금부터는 어머니 옆에서 책을 읽을래요.”**

**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사이가 좋았고 리브가는  
그런 야곱을 더 사랑해주었어요.**

**친구들! 에서와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 
가장 큰 형, 맏아들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었어요.**

**만약 아버지가 죽고 나면 큰아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 
아버지의 재산을 두 배로 물려받는 권리였죠.**

**그러니까 큰 형 에서는 동생 야곱보다  
훨씬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었어요.  
하나님께서 맏아들에게 주신 특별한  
축복의 선물인 셈이죠.**



그런데 에서는 이 특별한 선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나보요.

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 
집에서 야곱이 맛있는 팔죽을 끓이고 있었어요.

**“큁... 어우 맛있는 냄새! 야곱 너 제법이다!  
팔죽을 아주 맛있게 끓였는데?  
나도 한 그릇만 다오.  
하루종일 사냥감들을 쫓아다녔더니  
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다.”**

그러자 야곱이 말했어요.

**“형! 세상에 공짜가 어딴어?  
나도 하루종일 정성들여 이 팔죽을 만들었다구.  
만약 형이 ‘말아들의 권리’를 나한테 주면  
나도 이 팔죽을 형한테 줄게.”**

여러분이 에서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?  
야곱의 제안에 싫다고 했을 것 같나요?

하지만 그 때 에서는 배가 너무나도 고팠어요.  
‘말아들의 권리’고 뭐고 먹음직스러운 팔죽 앞에서  
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.

**“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 
말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야.  
알았다, 그까짓거 너 줄테니까  
빨리 팔죽 한 그릇 좀 다오.  
이야.. 이거 웅심이기도 들어갔네”**

**에서는 와구와구 팔죽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.  
자신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했다는 사실도  
모른채 말이죠.**



시간이 흘러 이삭은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.  
건강이 나빠져 숨을 쉬기조차 어려워졌고  
눈이 어두워져 앞이 보이지 않았죠.  
죽음이 가까워졌다고 느낀 이삭은  
말아들인 에서를 축복해주려고 불렀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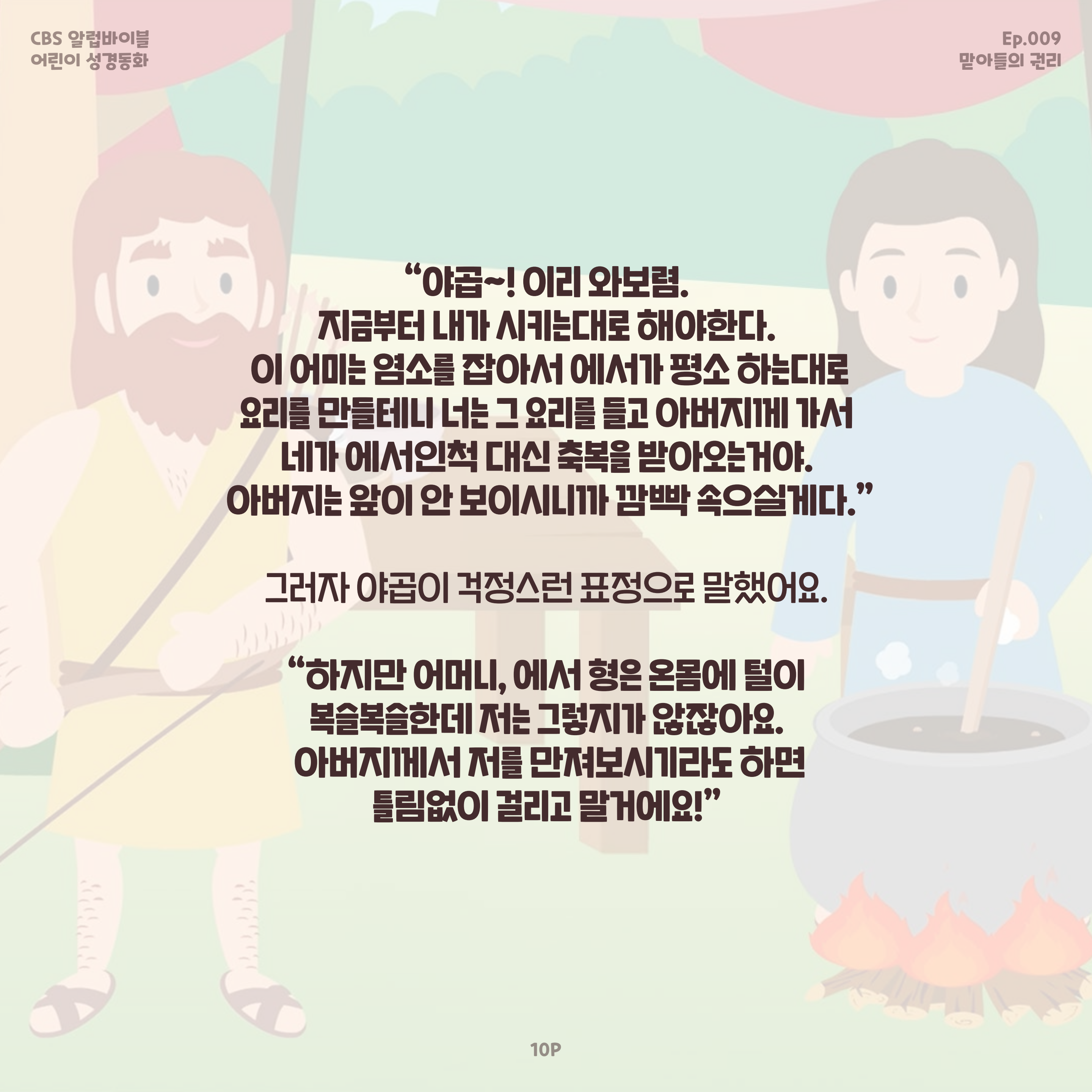
**“에서야, 오늘따라 네가 해준 요리가 먹고 싶구나.  
지금 바로 나가서 관창은 짐승을 사냥해오거라.  
내 그걸 먹고 기운을 차려서 너를 축복해주마.”**

에서는 재빨리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.  
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죠.

**‘저번에 말아들의 권리를 야곱한테  
팔아버렸는데 그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?’**

한편 리브가는 작은아들 야곱이 말아들의  
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.  
그래서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고는  
한 가지 꾀를 내었죠.



A colorful illustration of a man with a brown beard and a yellow tunic, and a woman with brown hair in a blue tunic. The woman is cooking over a fire in a large pot, stirring with a wooden spoon. The man is holding a long staff. The background shows a simple landscape with green hills and a pink sky.

**“야곱~! 이리 와보렴.  
지금부터 내가 시키는대로 해야한다.  
이 어머니는 염소를 잡아서 에서가 평소 하는대로  
요리를 만들테니 너는 그 요리를 들고 아버지께 가서  
네가 에서인척 대신 축복을 받아오는거야.  
아버지는 앞이 안 보이시니까 깜빡 속으실게다.”**

**그러자 야곱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어요.**

**“하지만 어머니, 에서 형은 온몸에 털이  
복슬복슬한데 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.  
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시기라도 하면  
틀림없이 걸리고 말거예요!”**

그러자 리브가가 대답했어요.

**“엄마가 그 정도도 생각 못했을까봐?  
자, 여기 염소가죽을 준비해놨으니  
이걸로 양팔과 목 주변을 감싸보렴.  
아버지께서 염소털을 만져보시면  
네가 에서라고 철썩같이 믿으실게다!”**

그렇게 야곱은 리브가가 시킨대로 음식을 들고 이삭에게 갔어요.

**“아버지, 시키신대로 요리를 만들어왔습니다.  
이제 저를 축복해주세요.”**



**“아니, 나간지 얼마나 됐다고 어찌 벌써 사냥을 마쳤느냐?”**

**“어... 그, 그데요..  
아! 하나님께서 사냥거리를 빨리 찾을 수 있게  
도와주셨나봐요. 어서 음식을 드셔보셔요.”**

**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이삭은 뭔가 이상했어요.**

**“가만 이 목소리는 둘째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 
네가 정말 에서란 말이나?  
그렇다면 어디 팔을 내밀어보거라.”**

야곱은 준비한대로 염소가죽을 두른채  
이삭에게 팔을 내밀었어요.  
복실복실한 털을 만져본 이삭은  
깜빡 속을 수 밖엔 없었죠.

“옳거니! 에서가 맞구나.  
이렇게 털이 수북~한 팔은 에서의 팔이 맞아!  
에서야, 내가 오늘말아들인 너를  
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.”

그렇게 이삭은 엉뚱하게도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어요.  
그모든게 순식간에 벌어졌고  
이제는 돌려담을 수 없는 말이 되고 말았죠.



그리고 몇 시간 후

**“아버지! 아버지! 제가 왔습니다!  
이 말아들 에서가! 토실토실한 사슴을 잡아왔습니다!  
금방 요리를 해드릴테니 저를 축복해주십시오! 허허허.”**

진짜 에서의 목소리를 들은 이삭은  
깜짝놀라 어안이 뱅뱅했어요!

**“에..에서가 왔다고?  
아니 그럼 아까 음식을 갖다준 녀석은 누구란 말이나?  
에서야, 나는 몇 시간 전에  
이미 누군가에게 축복을 해주고 말았단다..”**

**“예? 아니 그런 법이 어딴습니까?  
제가 에서인데요! 빨리 그 사람의 복을  
취소하고 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!  
제가 맏아들이잖아요!”**

**“이럴 수가 니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인 모양이구나.  
에서야, 하나님의 축복은 함부로 취소하거나  
다시하거나 할 수 없는 귀한 복이란다.  
이미 복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.  
어찌하겠느냐 이 모든게 하나님의 뜻이거늘  
아이고..”**



**그 말을 들은 에서는 엉엉 울부짖었어요.  
하지만 이미 때는 늦고말았죠.**

**팔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버린  
자신을 원망할 수밖에요.  
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값어치를  
에서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.**